

『성경전서 새번역』의 국어학적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영환**

1. 머리말

이 논문은 『성경전서 새번역』¹⁾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고구한 것이다. 『새번역』을 국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잘못 번역되었거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만한 점을 요모조모 점검하여 앞으로 수정·간행되는 성경이 훨씬 우리말 어법에 맞고 젊은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어학적 측면에서 기틀을 다지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는 유구하다²⁾. 1882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니복음전서』가 출간된 이후 신약성경의 날권이 줄곧 나오다 1911년에 『성경전서』가 간행되었다. 그 뒤 1938년에 『성경 개역』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1952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바꾼 개역한글판이 등장하였으며, 그 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침내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본이 현대인들에게 동떨어진 옛말이나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표현이 허다하고 국어정서법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1993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출간되었다. 그런 다음 2001년에 이를 개정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새로 출현하였으며, 이 개정판의 책 이름을 좀 더 쉽고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남대학교에서 마련해 준 학술연구조성비의 도움을 받았음.

** 한남대학교 교수, 국어학.

- 1) 앞으로 이 성경 번역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새번역』이라 줄여 쓸 것이다. 이 명칭엔 현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번역자들의 소망이 ‘머리말’에 담겨 있다.
- 2) 초창기 상세한 상황은 『대한성서공회사Ⅱ』에 상술되어 있으며, 이만열은 한국인이 성경을 접촉하게 된 경위부터 한국어 성경의 번역·출판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최근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Ⅱ』(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7-54.

친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2004년에 『성경전서 새번역』으로 달리 명명하였다.

이제까지 『새번역』을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번역본의 출간 이전에 앞으로 발간될 성경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예시한 연구물부터 『새번역』이 온전히 떠오른 뒤 본격적으로 해부하고 전면적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한 논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그렇지만 몇몇 연구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탁월한 검토를 하였으며, 앞으로 간행될 성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적확하게 짚어 주었다.

민영진(1993)은 『표준』의 번역지침을 먼저 제시한 뒤, 번역의 성격과 편집의 특성을 소략하게 논의하였다. 그 가운데 다섯 가지 번역지침을 명쾌하게 거론한 것은 매우 돋보인다.³⁾ 첫째는 번역 언어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번역 원칙을 요약한 것으로,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번역 성경의 용도를 밝힌 것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거의 모든 고유명사의 음역은 『개역』을 따른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개신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 ‘독생자’, ‘인자’, ‘홍해’, ‘언약’ 등 『개역』의 용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나채운(1993)은 우선 성경 번역이 지난한 작업임을 인지하고 번역문이 번역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새번역』의 장점을 하나하나 밝혀 놓았다.⁴⁾ 그중 국어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남성 위주의 사상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인 어휘를 사용한 것, 쉬운 번역이라는 것, 저속한 말 또는 비천한 말을 보통말 또는 고운 말로 바꾼 것,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개역』에 익숙해져 있음을 고려하여 『개역』의 표기를 따른 것, 구두점을 찍고 본문에 소제목을 붙이는 등 편집 체제를 아주 다르게 쇄신하여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무용(1993)은 『표준』의 문장위원으로서 실제 문장을 다듬는 현장에서 생생히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히 지적하였다.⁵⁾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른지, 어떤 문체가 더 나은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고민한 과정과 선택된 결과 따위를 토로하였는데, 특히 준말과 본딧말,

3)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1993), 62-71.

4) 나채운, “『표준 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1993), 232-282.

5)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1993), 72-86.

한자어 사용, 대명사, 종결형, 준비법, 문장부호, 인용법 등에서 선택하는 데 고충이 컸음을 하나하나 밝혔다.

전혜영(1993)은 『표준』을 국어학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어휘에 나타난 특징과 문장에 나타난 특징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하였다.⁶⁾ 어휘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한자어에서 고유어로의 변화, 한자어 안의 변화, 어휘의 구체화를 거론하였고, 문장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문체의 변화, 현대 어법에 맞게 풀어 쓴 문장, 담화 상황을 살린 문장을 언급하였다. 국어학자로서의 그의 지적은 온전히 수긍이 가며 앞으로 어떤 번역본이든 새로 출간하기 전에 그의 탁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박영환(2011)은 『개역개정』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⁷⁾ 『개역개정』이 국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형태·구문론적인 면, 의미론적인 면, 정서법적인 면에서 낱낱이 파헤쳤다. 따라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비록 번역본은 다를지라도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잘못 번역된 곳이 눈에 띄는 까닭에, 『개역개정』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이 이 논문의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⁸⁾ 『새번역』에 대한 검토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신학적인 면에서 천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학적 면에서 고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전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오로지 국어학적 견지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새번역』 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함으로써 앞으로 간행될 『새번역』의 수정번역본이나 후대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성경의 어휘나 문장을 다듬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이어지는 2장에서 본문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형태·구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정서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본문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일일이 캐어낸 다음 그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마지막 3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다루어진 연구결과를 집약하고 그 다음 논의할 만한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6) 전혜영,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1993), 87-116.

7)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8(2011), 226-247.

8) 실제로 『새번역』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고 『표준개정』에 관한 고구도 찾아볼 수 없다. 『새번역』과 『표준개정』은 명칭만 다를 뿐 실체는 동일하며 『표준』을 개정한 『표준개정』은 개정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선행 연구는 『표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집중되었다.

2. 본문 검토와 대안 제시

2.1. 형태·구문론적 측면

『새번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장이 짧아지고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번역』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사실상 『새번역』의 ‘머리말’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번역이 명확하지 못했던 본문과 의미 전달이 미흡한 본문은 뜻이 잘 전달되도록 고쳤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번역어투를 없애고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화문에서는 현대 우리말 존대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번역본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시 새로운 번역본의 출간을 독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옥성득은 “한국 교회는 분발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 누구나 쉽게 읽고(대중성), 외우기 좋고(구전 전통), 성경 각 권이 양식과 특성이 살아 있고, 어휘가 통일된 새 성경전서 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번역자를 기르고 투자해야 하며, 『새번역』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⁹⁾고 역설하였다. 그런가 하면 민현식은 “원전에 담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성서 문체로 혁신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읽는 재미에 빠질 수 있는 성서 문체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해 성서가 청소년의 언어로 제시되고 청소년에게 생명의 양식이자 삶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¹⁰⁾고 강조했다.

『새번역』이 현대어법에 맞는 번역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정을 해야 할 것은 국어의 존대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존대법에 맞지 않아 (2)에서와 같이 ‘예수’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허다한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¹¹⁾ 주격과 여격, 대격 등에서 존칭격조사가 쓰이고¹²⁾ 서술어에서 존경선어말어미가 엄연히 나타나는 까닭에 존칭접미사를 붙여 (1)에서와 같이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마땅하다.¹³⁾ (3)의 ‘선생님’과 ‘랍비님’, ‘주님’의 형

9) 옥성득, “구역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출판, 반포의 의미”,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178.

10) 민현식,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229.

11)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상”,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238.

12)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2011), 27-69.

태가 존립하는 것도 이를 지지한다. 이 점에서 (4)의 ‘어머니’는 ‘어머님’으로 바꾸고 서술어인 ‘먹을’도 존경의 뜻을 지닌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

- (1) ㄱ.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1:24)
 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5:7)
- (2) ㄱ.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4:38)
 ㄴ.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3:13)
 ㄷ.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4:36)
- (3) ㄱ.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10:51)
 ㄴ.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11:21)
 ㄷ.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12:29)
- (4) ㄱ.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3:32)
 ㄴ.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3:20)

이와 마찬가지로 ‘이’는 ‘분’으로 ‘그’는 ‘그분’으로 옮기고 격조사와 봉사 의미를 지닌 어휘도 호응관계에 맞게 구사하여야 한다.

- (5) ㄱ.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1:7)
 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3:8)
 ㄷ.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7:37)
 ㄹ.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4:41)
 ㅁ.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1:7)

현대어법에서 2인칭으로 쓰이는 ‘당신’은 존경의 의미가 바꿨다. 따라서 (6)에서 ‘당신’은 ‘선생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고, (7)에서 존경의 의미를 지닌 3인칭대명사는 ‘자기’가 아니라 ‘당신’이어야 한다.

- (6) ㄱ.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1:24)
 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3:11)
- (7) ㄱ.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3:9)
 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3:14)

한편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청자를 높이는 겸양법이 우리말에 발달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곳이 자주 눈에 띈다. 따라

13) 물론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지극히 객관화하여 서술하거나 등장 인물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나아가 적대적인 감정을 지녔을 경우 경어체 표현은 쓰일 수 없다.

서 1인칭대명사는 ‘나’가 아니고 ‘저’이며 복수형도 ‘저희’류가 쓰여야 한다. 그리고 3인칭대명사는 ‘그’뿐만 아니라 ‘그녀’도 의미에 맞게 분리하여 써야 한다.

- (8) ㄱ.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1:40)
- 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5:23)
- ㄷ.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1:24)
- ㄹ.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9:28)
- ㅁ.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14:6)

이와 아울러 2인칭대명사의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단수로는 ‘너’, 복수로는 ‘너희’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9)에서 ‘네’는 ‘자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옳바르고 그에 따라 서술형종결어미도 달라져야 한다.¹⁴⁾

- (9) ㄱ.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2:5)
- ㄴ.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7:29)

이뿐만 아니라 격조사가 달리 쓰여야 할 곳이 있다. 곧 (10ㄱ)에서 방편의 뜻을 지닌 ‘-로’보다 대격조사 ‘-를’이 더 낫고, (10ㄴ)과 (10ㄷ)에서는 여격조사인 ‘-에게’가 더 잘 어울린다.

- (10) ㄱ.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6:34)
- ㄴ.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7:7)
- ㄷ.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15:32)

또한 격조사를 삽입하여 원문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11)에서 ‘믿음’, ‘있’ 뒤에 주격조사를 첨가하면 훨씬 문장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11ㄷ)에서와 같이 ‘-를’을 삭제하는 것이 나온 경우도 있다.

- (11) ㄱ.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9:24)
- ㄴ.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은 꺾어다가(11:8)
- ㄷ.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11:33)

14)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도 정중하게 대하셨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면 호칭으로는 ‘네’나 ‘너희’ 대신 ‘자네’나 ‘자네들’이 나올 것이며, 당신이 신적인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에 강조점이 있다면 제자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하는 화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장을 명사화한 것을 살펴보면 『새번역』은 『개역개정』에 비해 ‘-음’을 적게 사용하여 훨씬 매끄러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12)에서 ‘알므로’는 ‘알았기 때문에’로 고치고 ‘묻기’는 ‘묻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현대인에게 더 부합할 것이다.

- (12) ㄱ.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5:33)
 ㄴ.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9:32)

한편 (13)과 (14)에서처럼 재귀대명사나 3인칭대명사가 쓰인 문장에서 그것들을 삭제하면 문장이 한층 매끄럽게 될 부분이 간간히 보이며, 이는 2인칭대명사가 겹쳐 쓰이거나 지시관형사를 곧이곧대로 번역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13) ㄱ. 그는 자기의 겂옷을 벗어 던지고(10:50)
 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겐 좋았을 것이다(14:21)
- (14) ㄱ.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9:35)
 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9:35)
 ㄷ.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11:1-2)
- (15) ㄱ.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10:36)
 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4:25)
 ㄷ.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6:55)
 ㄹ.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9:43)

이 외에도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보아 (16)에서 ‘하나’와 ‘선택받은’은 모두 삭제하여 원활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과 조사 ‘-도’는 함께 첨가의 의미를 지니므로 ‘또한’을 삭제해야 한다.

- (16) ㄱ.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1:23)
 ㄴ.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13:20)
 ㄷ.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2:28)

이와는 반대로 문맥상 지시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17)에 보이는 명사 앞에 ‘어떤’이나 ‘저’ 같은 관형어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7) ㄱ.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다(4:21)
 ㄴ.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8:26)

한편 수동 표현을 써야 할 곳에 능동 표현이 출현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

- (18) ㄱ.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9:12)
- ㄴ. 성경에 기록하기를(14:27)

그리고 어미의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시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는 ‘-고’보다 ‘-며’가 온당하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일 경우 ‘-는’보다는 ‘-을’이 적당하다.

- (19) ㄱ.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14:22)
- ㄴ.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4:33)

또한 접속부사를 잘못 사용하여 문장이나 문단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곳도 있다. (20ㄱ)은 동시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면서’가 더 적합하고, (20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곧바로 대꾸하는 것이므로 ‘그러자’가 좀 더 나올 듯하며, (20ㄷ)에서도 그 앞 절과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또는 ‘이제’ 따위가 적절할 것 같고, (20ㄹ)에서도 ‘그리하니’보다는 ‘그러자’가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20ㅍ)에서도 앞의 소원에 대한 즉각적인 꾸짖음이므로 ‘그러자’가 훨씬 매끄럽다.

- (20) ㄱ.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6:8)
- ㄴ.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7:28)
- ㄷ.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2:10)
- ㄹ.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5:20)
- ㅍ.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10:13)

이 밖에 명령형종결어미도 현대어법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즉 (21)에서 ‘말아라’는 ‘마라’, ‘보여보아라’는 ‘보여 달라’라고 고쳐야 한다.

- (21) ㄱ. 들어가지 말아라(8:26)
- ㄴ. 나에게 보여보아라(12:15)

시제면에서도 검토해 볼 문장이 더러 있다. (22ㄱ)과 (22ㄴ)은 과거진행표현이 더욱 좋을 듯하여 ‘알고 있었기’와 ‘질려 있었기’가 알맞을 것이며, (22

ㄷ)은 ‘하시던’, (22ㄹ)은 ‘서 있던’, (22ㅁ)은 ‘일어났다’으로 각각 바꿀 필요가 있다.

- (22) ㄱ.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1:34)
- ㄴ.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9:6)
- ㄷ. 그는 늘 하시는 대로(10:1)
- ㄹ.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15:39)
- ㅁ.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13:7)

이뿐만 아니라 어순을 고치면 좋은 번역문이 될 수 있는 문장이 많이 있다. 즉 (23)을 일부 단어와 함께 (24)로 바꾸면 좋은 국어 문장이 된다.

- (23) 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1:11)
- 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9:2)
- ㄷ.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12:20)
- ㄹ.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있다(12:27)
- ㅁ.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16:8)
- (24) ㄱ.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 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 ㄷ.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 ㄹ.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 ㅁ.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 나와서 달아났다.

그런데 온전히 현대 한국어 문장이 되지 못하고 번역에 급급하여 아직도 외국어투의 문장이 자못 발견되는데 이들도 (26)과 같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잘 다듬어야 한다.¹⁵⁾

- (25) ㄱ.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1:11)
- ㄴ.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5:29)
- ㄷ.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5:37)
- ㄹ.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6:15)
- ㅁ.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9:31)
- ㅂ.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13:12)

15) 복음서 저자가 원문에서 의도했던 의미가 현대국어로 옮길 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원문의 취지를 살리는 데 너무 치중하여 현대국어의 의미기능에 어긋난 문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양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신학자와 국어학자가 장기간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 (26) ㄱ.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ㄴ. 출혈이 그치니
 ㄷ.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ㄹ.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ㅁ. 그분이 처형되시고 나서, 그분이 피살되시고 나서
 ㅂ.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2.2. 의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논의할 사항은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이다. 『새번역』의 머리말에서 밝혔지만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가 허다하게 발견된다. 좀 더 쉬운 한자어로 바꾸거나 모두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널리 쓰이고 있는 고유어로 옮기면 좋을 듯하다.

(27)에서 ‘규례’는 ‘규칙’으로, ‘완악한’은 ‘완고한’이나 ‘고집 센’으로, ‘능욕’은 ‘모욕’으로, ‘회롱’은 ‘조롱’으로, ‘정죄’는 ‘단죄’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28)에서 ‘선한’을 ‘착한’ 또는 ‘좋은’으로, ‘부정한’은 ‘더러운’, ‘탄식하시고’는 ‘한숨을 내쉬시고’,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으로, ‘허락하고’는 ‘놓아두고’로, ‘육신’은 마음과 대응되는 ‘몸’으로, ‘도망하였다’는 ‘달아났다’, ‘만민’은 ‘모든 사람’으로 바꾸면 훨씬 쉽게 뜻을 알 수 있다.

- (27) ㄱ.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7:3)
 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7:4)
 ㄷ.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10:5)
 ㄹ. 그를 능욕하였다(12:4)
 ㅁ. 이렇게 예수를 회롱한 다음에(15:20)
 ㅂ.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16:16)
- (28) ㄱ.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3:4)
 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7:5)
 ㄷ.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7:34)
 ㄹ.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9:37)
 ㅁ.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10:14)
 ㅂ.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14:38)
 ㅅ.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16:8)
 ㅇ.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16:15)

그러나 오히려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거나 고유어를 다른 고유어로 옮기

는 것이 나은 것도 있다. (29)에서 ‘빈 들’은 ‘광야’, ‘각 사람’은 ‘각자’, ‘이레’는 ‘일 주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30)에서 ‘고물’을 ‘배 뒤 쪽’, ‘해골 곳’은 ‘해골터’로 바꾸는 것이 옳바르다. 이뿐 아니라 한자어와 고유어가 함께 등장할 때 고유어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다.

- (29) ㄱ. 여기는 빈 들이고(6:35)
 ㄴ.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13:34)
 ㄷ. 이레의 첫날 새벽(16:2)
- (30) ㄱ.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4:38)
 ㄴ.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15:22)

(31)에서 ‘생명에 들어가는’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에 비해 볼 때 몹시 어색한 표현이다. 『개역』은 “영생에 들어가는”으로, 『공역』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생명에 들어가는’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신학적인 이유로 꼭 필요하다면 ‘영원한 삶’에 대하여 그리스어가 ‘생명’임을 각주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31) ㄱ.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9:45)
 ㄴ.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9:47)

그런데 한자어를 쉬운 고유어로 풀어 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인자’도 신학적인 면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아들’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듯하다.

- (32) ㄱ.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2:10)
 ㄴ.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2:28)
 ㄷ.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9:9)

또한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를 쓰긴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나 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33)에서 ‘열병이 떠나고’는 ‘열병이 낫고’ 또는 ‘열이 가시고’로, ‘회복되었다’는 ‘나았다’ 또는 ‘온전하여졌다’로, ‘내리달아’는 ‘내리달려’로 고치는 것이 좋고, (34)에서와 같이 명사류나 부사어인 ‘돌썩발’을 ‘돌발’이나 ‘자갈발’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는 ‘무덤과 산에서’로, ‘마침’을 ‘공교롭게도’로, ‘크게’는 ‘매우’나 ‘무

척'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바르다.

- (33) ㄱ.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1:31)
- ㄴ.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3:5)
- ㄷ.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5:13)
- (34) ㄱ. 흙이 많지 않은 돌짜발에 떨어지니(4:4)
- ㄴ.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5:5)
- ㄷ.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1:30)
- ㄹ.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5:42)

그런가 하면 정확한 단어를 골라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곳이 많이 있다. 우선 (35)에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것이 더 적확하고, '어귀'보다는 '무덤'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장소이므로 '입구'가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은 '심지' 않고 '뿌리기' 때문에 (36)은 '뿌릴', '뿌리고'로 정정해야 한다. (37)에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 까닭에 각각 '호숫가', '호수'로 단어를 대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8)에서 '변론'은 법적인 용어이므로 '토론'으로 바꾸고, '증거'는 오히려 법률 용어인 '증언'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

- (35) ㄱ.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10:25)
- ㄴ.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15:46)
- ㄷ.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16:3)
- (36) ㄱ.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에는(4:31)
- ㄴ.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4:32)
- (37) ㄱ.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1:16)
- 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1:16)
- ㄷ.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6:53)
- (38) ㄱ.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12:28)
- ㄴ. 그는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14:55)

한편 단어를 축소하거나 보강하여 의미를 명쾌히 전달할 수가 있다. 즉 (39ㄱ)에서 '장터거리'는 '장터'로 줄이고 (39ㄴ)에서 '명하시어'는 어기를 2음절로 늘려 '명령하시어'로 바꾸는 것이 좋다.

- (39) ㄱ.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6:16)
- ㄴ. 그들에게 명하시어(9:9)

문맥상 (40ㄱ)과 (40ㄴ)은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셔서’와 ‘와서’는 각각 ‘가셔서’와 ‘가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40ㄷ)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는 말이므로 ‘오셔서’ 대신에 ‘가셔서’가 올바르다.

- (40) ㄱ.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1:14)
 ㄴ. 너희는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6:31)
 ㄷ.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5:23)

또한 (41ㄱ)의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도 맥락 안에서 볼 때 가능한 번역이겠으나, 화자 쪽이 아니라 청자 쪽이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개역개정』)가 좀더 적절하고, (41ㄴ)의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는 오히려 화자가 동일 문장 안에 제시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로 물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 화자근거리 지시관형사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장감이 있다.¹⁶⁾

- (41) ㄱ.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1:25)
 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10:12)

한편 수량 표현은 (42ㄱ)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곧 (42ㄴ)과 (42ㄷ)은 각각 ‘중풍병 환자 한 명’, ‘중 한 명’으로 고치고, (43ㄱ)과 (43ㄴ)에서 ‘몇’은 (43ㄷ)과 같이 ‘몇 사람’이나 ‘몇 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42) ㄱ.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가(12:15)
 ㄴ. 한 중풍병 환자를(2:3)
 ㄷ.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12:2)
 (43) ㄱ.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2:6)
 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몇이(15:35)
 ㄷ.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11:5)

장애인을 가리키는 용어의 번역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새번역』에는 (44)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명칭을 그대로 쓰거나 (45)에서처럼 장애의 모

16)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41-67.

습을 풀어 썼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와 같은 단어나 표현을 꺼려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에서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지체부자유자’,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한센병’ 등으로 옮기는 것이 나올 것이다. 장애인을 사랑했고 우선적으로 고쳐 주기 위해 애를 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기존 용어는 하루 빨리 대체되어야 한다.

- (44) ㄱ.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9:25)
 - ㄴ. 나병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14:3)
- (45) ㄱ.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3:1)
 - ㄴ. 사람들이 눈 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5:2)
 - ㄷ.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7:32)
 - ㄹ. 눈 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10:46)

한편 동음어 ‘곧’은 ‘바로’, ‘금방’, ‘곧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가설명어로도 쓰인다. 따라서 의미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47)에서와 같이 ‘곧바로’를 쓰거나 ‘곧장’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그리고 동음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48ㄱ)은 (48ㄴ)으로 바꾸어야 한다.

- (46) ㄱ.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1:18)
 - ㄴ. 예수의 소문이 곧 길거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1:28)
 - ㄷ.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6:45)
- (47) ㄱ.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1:29)
 - ㄴ.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2:12)
 - ㄷ.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3:6)
- (48) ㄱ.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1:13)
 - 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3. 정서법적 측면

『새번역』에 문장부호를 사용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¹⁷⁾ 그런데 (49ㄱ)에서처럼 문장부호가 잘 쓰인 곳도 있지만 (49ㄴ)에서와 같이 인용문 뒤에 마침표가 빠진 곳도 있다.

17) 모든 문장부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나 2:10의 시작 부분과 7:3과 4절의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 표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 (49) ㄱ.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5:28)
 ㄴ.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3:30)

한편 (50)에서처럼 쉼표가 너무 자주 사용되어서 독서에 방해가 되므로 일부는 삭제하여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1)에서와 같이 접속과 설명이 이어질 경우엔 쉼표를 붙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부 접속부사 뒤에는 쉼표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서 (52)는 (53)을 본받아야 한다.

- (50) ㄱ.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4:7)
 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15:31)
 ㄷ.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8:4)
- (51) ㄱ.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5:15)
 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7:2)
- (52) ㄱ.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9:2)
 ㄴ.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10:21)
 ㄷ.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10:21)
- (53) ㄱ. 그러나 예수께서는(10:5)
 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10:6)
 ㄷ.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10:7)

『새번역』은 띄어쓰기에 매우 유의하였다. 그렇지만 몇몇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므로 국어정서법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갈라놓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고쳐야 한다.

- (54) ㄱ.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6:18)
 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6:22)
 ㄷ. 내가 들어주마(6:22)

아울러 두 단어로 취급하기보다 복합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점에서 (55)에서 ‘외딴 곳’과 ‘길 가’, ‘참 예언자’와 ‘빈 손’은 붙여 써야 옳다.

- (55) ㄱ.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1:45)
 ㄴ. 눈먼 거지가 길 가에 앉아 있다가(10:46)
 ㄷ.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1:32)
 ㄹ. 빈 손으로 돌려보냈다(12:3)

그 밖에 (56ㄴ)에서처럼 조사를 띄어 쓴 것이나 (57)에서와 같이 부사어를 띄어 쓴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 (56) ㄱ. 성령이 비둘기같이(1:10)
- ㄴ.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12:31)

- (57) ㄱ. 그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1:23)
- ㄴ.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2:3)
- ㄷ.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4:35)
- ㄹ. 그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6:33)

한편 띄어서 쓸 곳을 붙여 쓴 곳도 있다. (58)에서 ‘오래가지’와 ‘비껴가게’ 그리고 ‘오래되었는지를’은 부사와 동사를 살려 띄어 쓰고, (59)와 (60)에서 명사는 분리하여 써야 한다.

- (58) ㄱ.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4:17)
- 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14:35)
- ㄷ.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15:44)

- (59) ㄱ. 다른 성전을 사흘만에 세우겠다(14:58)
- ㄴ.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15:29)

- (60) ㄱ. 십자가에 못박으시오!(15:13)
- ㄴ.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15:20)

3.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새번역』을 국어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형태·구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정서법적 측면에서 『새번역』을 자세히 고구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형태·구문론적 측면에서 『새번역』은 과거 번역서와 달리 현대어법에 맞는 번역을 하려고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국어 존대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예수’는 존칭접미사 ‘-님’이 첨가된 ‘예수님’으로 바뀌 써야 하고, 존경의 의미가 있는 이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겸양의 뜻이 담긴 일인칭대명사는 그 용법에 따라 달리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격조사의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원활한 문장이 되게 하기 위해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접속부사를 잘못 사용하여 문장이나 문단의 연결이 부자

연스러운 것도 바로잡아야 하며, 시제와 어순을 바꾸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투 문장은 유연한 국어 문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둘째로, 의미론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꿔 써야 한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더욱 정확한 용어를 골라 써야 하며, 수량 표현도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일컫는 용어도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정서법적 측면에서 문장부호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은 탁월하다. 그러나 쉼표가 너무 자주 사용되어 독서에 방해가 되기도 하며, 접속부사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간과한 곳이 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도 매우 신경을 써 거의 틀린 곳이 없는데 미처 손을 보지 못한 부분이 일부나마 눈에 띄어 안타깝다.

앞으로 수정본을 간행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전서로 확대하여 점검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현대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껏 깊은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출간될 성경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좀 더 쉬운 성경’의 편찬에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한글 성경, 국어학,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
Bible translation, Holy Bibl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New Korean Standard Version,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투고 일자: 2012. 1. 25,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3. 9)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 나채운, “『표준 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 (1993), 232-282.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Ⅱ』,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 (1993), 62-71.
- 민현식,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2011), 188-235.
-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랑”,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235-247.
-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226-247.
- 옥성득, “구역본 성경전서 (1911)의 번역, 출판, 반포의 의미”,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2011), 136-182.
-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2011), 188-235.
-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 (1993), 72-86.
-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2011.
- 전혜영,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 (1993), 87-116.

<Abstract>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Prof. Young-Hwan Park
(Han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4) in terms of Korean lingu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erroneous translations found in RNKSV based on Korean linguistic aspects and lay the foundation to publish a better version, which would provide a friendly access to its text and satisfy modern readers.

First, in view of morpho-syntactic field, some forms ought to comply with honorific rules. For an example to take ‘예수’, the honorific subject case ending, ‘께서’ needs to be rewritten as ‘예수님’. The second personal pronoun, ‘당신’ has no implication of honor any mor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humbleness, ‘나’ and ‘우리’ should be replaced with ‘저’, and ‘저희’. Furthermore, some case endings ought to be changed in order to read fast and to understand wel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conjunction adverbs, particles, tense, and word order must be recognized.

Secondly, in the viewpoint of semantics, Chinese characters which are difficult to decode need to be changed to easy Chinese or native vocabulary. Lexical selection requires prudence to enable modern readers to comprehend. As for quantitative expressions, some need to be replaced with the more proper forms. Words signifying ‘the disabled’ should be changed to appropriate ones such as ‘physically challenging man’ or ‘mentally challenging woman’, so that they will not evoke unpleasant feelings.

Finally, it’s very preferable in terms of orthography that punctuation marks are used in the Korean Bible for the first time. However, in some sentences the appearance of numerous commas is not desirable. And after some conjunction adverbs, the comma can’t be used. There are minimal mistakes in word spacing despite meticulous proofreading.